

황희찬 황소 본능... 팀 구한 천금 동점골

황희찬(23·잘츠부르크)이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최하위 팀에 패배할 위기에 놓인 팀을 극적인 동점포로 살려냈다.

황희찬은 1일 오스트리아 마리아 엔처스도르프 BSFZ-아레나에서 열린 아드미라와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1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풀타임으로 뛰며 올 시즌 9호 골이자 리그 6호 골을 기록했다. 팀이 0-1로 밀리던 중 터져나온 황금같은 동점골이었다.

리그 1위로 선두를 달리는 잘츠부르크와 달리 아드미라는 리그 12개 팀 중 11위로, 2부 강등 위기에 처한 팀이다.

이날 잘츠부르크는 아드미라와 1-1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황희찬은 4-2-2 포메이션에서 다카와 함께 투톱으로 출전했다.

잘츠부르크는 이날 아드미라를 72%의 볼 점유율로 압도했다. 잘츠부르크가 16번의 슈팅을 기록할 동안 아드미라는 단 1번의 슈팅밖에 쏘지 못했다.

하지만 잘츠부르크는 전반 16분, 그 1번의 슈팅에 허무하게 골문을 내주며 불안하게 경기를 시작했다. 골 지역 앞에서 찬 로만 쿠슈바움의 프리킥을 시안 바크슈가 헤더골로 연결시킨 것. 골키퍼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16R

아드미라전 풀타임 출전

후반 32분 폭풍 골... 1-1 무승부

잘츠부르크 16경기 연속 무패

권창훈, 뮌헨글라트바흐전 교체 출전

백승호, 빌레펠트전 선발로 61분

가 선방했으나, 골 라인을 넘어서 손이 닿는 바람에 그대로 골로 인정됐다.

잘츠부르크는 승부를 뒤집고자 맹공을 퍼부었으나, 골문을 쉽게 열리지 않았다. 전반 20분 황희찬은 골키퍼보다 골 지역 더 깊이 들어가 슈팅을 시도했으나, 수비수 머리에 맞아 기회를 놓치면서 아쉬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승부는 경기가 막바지에 다다른 후반 32분이 돼서야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골 지역 왼쪽에서 미나미노 타쿠미가 올린 크로스가 황희찬을 향했고, 황희찬은 가벼운 발리슛으로 마무리하며 굳게

닫힌 골문을 열어제꼈다.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면서 잘츠부르크는 개막 이후 16경기 무패(12승 4무) 기록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승점 40점을 갖고 있는 잘츠부르크는 리그 2위 라스크(12승 2무 2패)를 승점 2점 차이로 따돌리며 리그 1위를 유지 중이다. 잘츠부르크는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에서 최근 6년 연속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린 팀이다.

잘츠부르크는 오는 8일 잘츠부르크 레드불 아레나에서 WSG 바텐스와 홈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한편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는 관창훈(25·프라이부르크)이 뮌헨글라트바흐와 1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28분 교체 투입돼 20여분을 뛰었다. 프라이부르크 정우영(20)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프라이부르크는 2-4로 패배하며 승점 22점을 기록, 리그 6위에 머물렀다.

독일 2부 분데스리가에서는 백승호(22·다름슈타트)가 아르미니아 빌레펠트와 15라운드 홈 경기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다. 백승호는 후반 16분 에리히 베르코와 교체됐으며, 팀은 1-3으로 패배했다. 다름슈타트는 현재 리그 12위(승점 18)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동료·팬이 인정한 최고 투수 양현종

프로야구선수협 시상식... KIA 강이준 퓨처스리그 선수상

KIA 타이거즈 '에이스' 양현종이 선수와 팬이 인정한 최고의 투수가 됐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회장 이대호·이하 선수협)가 2일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호텔 7층 두 배움에서 2019 플레이어스 초이스 어워드 시상식을 열었다.

선수들이 직접 투표로 수상자를 선정하는 이번 시상식에서 양현종은 올해의 투수상과 스타 플레이어상 수상자로 두 차례 이름이 호명됐다.

선수들이 인정한 최고의 투수가 된 양현종은 프로야구 팬(야구게임 마구마구 유저)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한 스타 플레이어상의 영예도 차지했다.

KIA 투수 강이준은 퓨처스리그 선수상을 받았다. 선수협은 선정위원회를 통해 구단별 1명씩 퓨처스리그 수상자를 결정했다.

올해의 선수상(모범상)은 NC 다이노스 박석민이 수상했다.

박석민은 강원 산골 재해구조 기금에 1억여 원을 기부하고, 지역 야구부와 각종 야구 관련 단체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그라운드 안팎에서 프로다운 모습과 선행을 보였다.

올해의 야수상은 양의지(NC), 올해의 신인상은 김태진(NC), 재기 선수상은 서건창(키움), 기량발전상은 배재성(KT)에게 돌아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유승철 '입영열차 안에서'

프로 데뷔 3년차... 오늘 현역 입대
지난해 38경기 평균자책점 4.37

올 시즌 팔꿈치 부상에 재활군
"의미있는 시간 보내고 오겠다"

"건강하게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KIA타이거즈의 투수 유승철이 잠시 마운드를 떠난다.

유승철은 3일 파주 훈련소에 입소해 현역으로 군 복무를 시작한다.

아쉬움이 가득했던 유승철의 2019시즌이었다.

고졸 2년 차였던 지난해 프로 무대에 데뷔한 유승철은 38경기에 나와 4.37의 평균자책점으로 1승 1세이브 3홀드를 기록했다.

자신감 있는 피칭으로 47.1이닝을 소화하면서 KIA 마운드의 '샛별'이 됐다.

하지만 올 시즌은 3경기 출전에 그쳤다.

4월 12일 SK전을 끝으로 자취를 감췄던 유승철은 결국 지난 7월 팔꿈치 수술을 하면서 재활군이 됐다.

그리고 현역 복무 대상자가 되면서 3일 파주로 떠나게 됐다.

유승철은 시즌 전 올 시즌 키워드를 '건강'으로 꼽았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었지만 '건강'은 올 시즌 아쉬움의 큰 부분이 됐다.

유승철은 "시즌 준비하면서 건강을 많이 생각했다. 팔꿈치가 안 좋으니까 안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건강을 이야

기했었다"고 돌아봤다.

계획과 다른 2019시즌이 됐지만 유승철에게는 야구를 다시 생각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됐다.

유승철은 "솔직히 지난해에는 야구가 너무 쉽다고 생각했다. 그냥 쉬었다. 지금은 몸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렵다"며 "처음에는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는 차라리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또 "지난겨울에 시즌 준비를 열심히 했었다. 캠프 때부터 많이 했는데 안 됐으니까 이 방법이 틀린 것이다. 올 시즌에는 안 좋은 경험을 많이 했다. 하지만 이게 나중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현역으로 입대를 하면서 이런저런 걱정은 있다. 야구를 쉬어야 한다는 부분도 있고, 낯선 환경과 생활도 걱정이다.

하지만 유승철은 나름의 방법을 찾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오겠다는 각오다.

유승철은 "처음에는 공의 군무에 욕심을 냈다. 나만의 계획이 있었는데 안 되니까 막막했다. 그래도 방법이 새로 생겼다.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야구를 한 13년 지기 친구가 있다"며 "송원대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나란히 수술을 하고 동반 입대를 한다"고 웃었다.

현역으로 전역한 뒤 '깜짝 스타'가 된 선배 박찬호도 유승철에게는 좋은 본보기가 됐다.

유승철은 "찬호형에게 많이 물어봤다. 운동이 야스타일이라 다르기 때문에 묻기 그렇고 군대에서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등을 물어봤다"며 "갑자기? 벌써? 제대했냐는 소리 듣게 빨리 다녀오겠다. 군대에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히 잘 다녀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박진섭, 명장으로 우뚝

K리그 시상식 감독상... 아슬마토프 수비 부문·펠리페 득점상

"특별한 능력이 있는 감독처럼 보이게 해준 우리 광주FC 선수들과 영광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9경기 연속 무패라는 신기록 행진 속에 광주FC의 우승을 지휘한 박진섭 감독이 2일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 2019 대상 시상식에서 '감독상 주인공'으로 무대에 섰다.

"작년에 시상식에 와서 언제든지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영광인 것 같다"며 말문을 연 박 감독은 묵묵히 자신을 응원해준 가족, 구단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감독이 아닌데 그런 능력이 있는 감독처럼 보이게 해준 우리 광주FC 선수들과 이 영광을 같이 나누겠다"며 우승 행보에 함께 한 광주 선수들에게 공을 돌렸다.

K리그2 '챔피언' 광주는 이날 감독상과 함께 5개의 트로피를 차지했다.

3명의 베스트 11이 탄생했다. 26경기를 24실점으로 막으면서 광주의 1위를 지킨 윤영국이 최고의 골키퍼가 됐고 '프리킥의 달인'으로 눈길을 끈 이은뚝과 '철벽 수비의 핵심' 아슬마토프가 수비수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아슬마토프는 수비수 최초 K리그2 MVP에도 도전했지만, 1표 차로 아쉽게 부산 이동준에게 MVP 트로피를 넘겨줬다.



'시즌 중상벌위원회에 회부돼 5경기 이상 출장 정지 또는 600만원 이상 벌과금의 중징계를 받은 선수와 감독은 후보 선정 과정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3관왕'이 무산된 펠리페는 대신 득점상 트로피를 쟁겼다.

전남드래곤즈에서는 10차례 골을 도운 정재희가 도움상 주인공으로 시상대에 올랐다.

K리그 감독상은 최종전에서 '역전 우승'을 이룬 전북현대 모리스 감독의 차지가 됐다. 아쉽게 우승컵을 놓친 울산현대의 김보경은 전북 문선민의 추격을 따돌리고 MVP 트로피는 수상했다.

한편 최정암으로 투병 중인 유승철 인천유나이티드 감독은 포토상 주인공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유 감독은 "예상하지 못한 상인데 감사하다. 올해 K리그는 작가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시나리오가 근사하고 멋진 한 해였다. 우리 팬들이 있었기 때문에 K리그가 흥행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꽤 유쾌해서 빨리 좋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